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7

“우리도 함께 뛰다”

최경주 올시즌 첫 ‘톱 10’

국내·외 감정평가업계의 ‘글로벌 리더’

(주)제일감정평가법인

“마라톤으로 다진 건강과 화합으로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등록 감정평가법인 제1호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김충남)가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을 통해 새 각오로 올 한해를 보내겠다는 결의에 착다.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은 광주·전남지사를 비롯, 전국에 14개 지사망을 갖췄다. 자본금만 60억4000만원, 연매출은 2007년 이래 5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감정평가사 및 직원수 등에서 규모 1위를 자랑하는 업계 최대법인이다.

신뢰·공정 고객 제일주의

특히 200명의 감정평가사와 함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미국감정평가사, 영국감정평가사, 부동산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 소비자에게 확실한 신뢰를 받는 우량회사다.
또 국내에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장을 수상했고, 중국 및 일본의 감정평가법인과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임직원들이 3·1절 마라톤을 앞두고 파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업무제휴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감정평가업계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업계 최고라 자부하는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의 마라톤 사랑도 자부심이 크다. 매년 3·1절 마라톤 대회는 물론 크고 작은 전국 대회에 참여하면서 마라톤으로 회사의 건강과 화합을 챙기고 있는 것.
마라톤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회사’의 자랑 ‘정진호 감정평가사’는 업계에서도 소문난 마라톤 마니아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이미 풀코스 100회를 완주한 화려한 경력과 함께 100km 울트

라 마라톤 7회 완주를 해냈다. 그의 마라톤에 대한 열정은 법인 전 직원에게도 전해져 사내 마라톤클럽 창단 계기가 됐다.
사내 마라톤 클럽은 지난 2006년 10월 정진호씨 울트라 7회 완주
광주시 남구 호사랑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단체팀으로 참가하는 등 사내 단합을 위한 클럽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씨는 “최근 구제역 여파로 전국 마라

톤 대회들이 연이어 취소돼 아쉬움이 가득했다”며 “그러나 3·1절 마라톤은 예정대로 진행돼 모처럼의 질주를 위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지사장 김충남 평가사는 “매년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임직원들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3·1절 정신을 계승하고 2011년 비상(飛上)의 한해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를 힘을 다해 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나상욱 3위... 투병 아버지에게 바치려던 우승 꿈 무산

PGA 노던트러스트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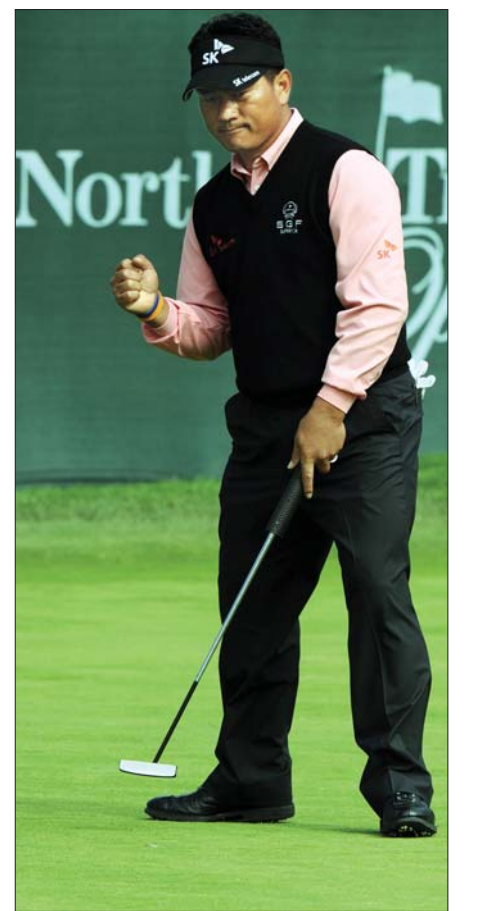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오픈(총상금 650만달러)에서 단독 3위에 올랐다.
나상욱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비에라 골프장(파71·729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4개를 기록하며 이븐파 71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를 친 나상욱은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은 12언더파 272타의 예런 배틀리(호주)가 차지했다.
전날 3라운드까지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라 역전 우승을 노렸던 나상욱은 초반 퍼트 난조에 발목을 잡혔다. 1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나상욱은 2번 홀(파4)에서 2.3m 정도 거리의 퍼트에 실패하며 곧바로 한타를 잃었다.
이후 파3 홀인 4번과 6번 홀에서 보기와 버디를 또 맞바꾸며 제자리걸음을 했고, 8번 홀(파4)에서 4.9m 거리의 퍼트를 세 번이나 하며 보기에 그쳤다.
10번 홀(파4)에서도 2.6m 거리의 퍼트를 놓친 나상욱은 선두 배틀리에 6타 차로

뒤지면서 사실상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나상욱은 17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단독 3위로 순위를 올린 것에 만족해야 했다.
1월 북호프 클래식 공동 5위에 오른 이후 출전한 세 차례 대회에서 모두 컷 탈락했던 나상욱은 이번 시즌 개인 최고 성적을 냈다. 투어에서 역대 개인 최고 성적은 준우승 세 차례다.
최경주(41·SK텔레콤)는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프레드 키플스(미국)와 함께 공동 7위를 차지, 시즌 첫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린 배틀리가 결국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다.
배틀리는 12번 홀(파4) 더블보기로 2위에 2타 차로 추격을 허용했으나 13번 홀(파4)에서 곧바로 버디를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비제이 싱(피지)이 16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 다시 2타 차로 따라붙고 17번 홀에서 4m 버디 퍼트 기회를 맞았으나 공이 살짝 빗나가 바람에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준우승했다.
배틀리는 2006년 버라이즌 헤리티지, 2007년 FBR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새 퍼터 적응... 올시즌 느낌 좋다”

7위 최경주, 경기내용 만족

최경주(41·SK텔레콤)는 20일(현지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오픈을 공동 7위로 마친 후 경기 내용과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시즌 첫 10위 내에 진입한 최경주는 “그동안 퍼팅이 잘 안돼 긴장감과 중압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 “점점 원하는 샷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있어 (올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PGA 투어 AT&T 페넬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 때부터 사용한 새 퍼터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큰 대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퍼트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서부에서 열린 경기에서 10위권에 든 것을 좋은 징조로 해석했다.
그는 “선수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서부에서 열린 경기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서부에서 잘 치고 가면 그해 우승이 있었는데 서부에서 리듬이 (시즌 내내) 좋게 반영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이나 한국계 선수 7명이 출전했으나 마지막 라운드에는 최경주와 나상욱만 남았다.
최경주는 “제가 볼 때 (한국 선수들은) 워낙 공을 잘 치고 테크닉도 좋고 몸도 좋고 하니까 덤비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가주면 곧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며 후배들에 대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좋은 성적에 집착하면 중압감도 생기고 마음이 빨라져 스윙도 빨라진다”며 “김비오나 강성훈은 자기만의 컬러가 있어 한 번만 불발이면 경기를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세상을 아름답게... 이웃에겐 행복배달

그린알로에

“3·1 민족정신을 되새기고 지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일구는데 그린알로에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린알로에가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첫 출사표를 던졌다. 정광속 대표 등 100여명은 “이번 대회를 ‘세상을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웃에게 건강과 행복을’이라는 기업이념을 실현하는 자리로 삼고 최상의 알로에 제품을 생산·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린알로에는 지난해 4월 창립했다. 광



그린알로에 직원들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지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일구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상의 알로에 생산·공급

주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이자 호남 유일의 알로에전문기업이다. ‘그린베라골드’ 등 21개 건강기능성식품과 ‘아벨라’ 시리즈 등 11개 기능성화장품 등 모두 37개 알로에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창립 당시 3000여명이던 건강설계사가 지난해 말 4500여명으로 늘었다. 매출도 9개월만에 275억여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건강설계사 8000여명이 5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향토기업으

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린알로에는 금남(禁男)의 회사다. 여성만 활동이 가능하다. 대신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정 대표는 “여성이 건강하고 즐겁게 돈을 버는 평생일터를 만들겠다”는 경영 방침이라며 “그리기 위해선 우선 본인이 건강해야 한다”고 마라톤대회 참가배경을 밝혔다. 정대표는 또 올해들어 주말 근무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주말에 쉬면서 컨디션을 조절해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뜻에서란다.
정 대표는 매일 저녁 음악을 들으며 러닝머신으로 30분가량 달린다. 특히 이번
여성들만의 평생일터
대회를 앞두고 “5km 완주를 위해 남은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더 진지하게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현 이사는 평소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기르고 있다. 김 이사는 또 하루 만보권을 통해 지구력과 근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정미 상무는 “지난 한 달간 8층에 있는 사무실을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있다”며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어 계단오르내리기를 하며 체력을 기르고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린알로에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 건강기능성식품 등 알로에제품 1억여원 상당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실버타운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청용 맹활약... 불턴 FA컵 8강 골인

풀럼 1대 0 꺾어

‘블루드래곤’ 이청용(23·불턴 원더러스)이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불턴이 FA컵 8강에 진출하는 데 일조했다.
이청용은 2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FA컵 16강 풀럼FC와 원정 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해 전반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불턴은 전반에 터진 클라스니치의 결승골로 풀럼을 1-0으로 꺾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거나 슈팅을 시도하는 등 눈에 띄는 역

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운 패스를 동료에게 연결해주고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상대 골문을 막아 세우는 등 공수를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을 과시했다.
1-0으로 앞서가던 후반 24분에는 무안바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정면에 있던 이반 클라스니치의 과감한 노스톱 슈팅을 유도하기도 했다.
땅에 맞고 상대 골키퍼에 막히는 바람에 아깝게 추가골을 놓쳤지만 후반 들어 가장 위협적인 불턴의 공격 장면이었다. 이청용

은 클라스니치의 선제 결승골의 물꼬를 틔우는 날카로운 패스로도 팀 승리에 기여했다.
전반 19분 클라스니치와 아크 정면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진영을 흔들었고 상대 수비가 급하게 견어낸 공을 오른쪽 측면에 있던 파트리스 무안바가 다시 낮은 크로스로 연결했다.
공이 다시 수비수를 맞고 정면으로 떨어지자 클라스니치가 몸을 날려가며 달려들어 왼발로 때렸고 공은 그대로 풀럼 골망을 갈랐다.
/연합뉴스

‘영건’ 노승열 세계 2위 카이머와 맞대결

23일부터 WGC 매치플레이

한국 골프 유망주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이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액션슈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회전에서 세계 2위 마르틴 카이머(독일)와 맞붙는다.
21일 발표된 대진표에 따르면 노승열은 ‘개리 플레이어’ 그룹에 편성돼 조 1번 시드를 받은 카이머와 1회전을 치른다. 23일부터 5일간 미국 애리조나주 마라나의 리즈칼튼 골프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세계 랭킹 순서대로 1위와 64위, 2위와 63위 순서로 매치플레이 대결을 벌여 우승자를 가린다.
세계 1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는 원래

64위 다니구치 토루(일본)와 1회전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다니구치가 목 부상으로 기권, 65위 헨리 스텐슨(스웨덴)과 1회전에서 맞붙는다. 스텐슨은 2007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폴트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토마스 비온(덴마크)과 32강 진출을 다투고 지난해 우승자 이언 풀터(잉글랜드)는 스투어트 싱크(미국)를 1회전에서 상대한다.
우즈는 비온을 꺾으면 파드리고 해링턴(아일랜드)-제프 오길비(호주) 조의 승자와 2회전에서 맞붙는 험난한 대진이다. 최경주(41·SK텔레콤)는 래티프 구센(16위·남아공), 양용은(39)은 알바로 키로스(21위·스페인)과 1회전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